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해외진출 소재 연구*

김종균**

<차 례>

1. 서 론
2. 해외진출을 다룬 서사
3. 해외진출 소재의 교섭 양상과 서사의 흐름
4. 해외진출 소재의 의미
5. 결 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에 서사문학에 새롭게 등장한 해외진출 소재의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외진출 소재는 대도 소재와 함께 18세기 말 이후에 등장하여 이후 야담과 고소설에서 상호 교섭을 이루면서 다양하게 설정되었다.

해외진출을 담고 있는 서사물은 『해동이적 보』에 수록된 <해중서생>을 필두로, 고소설 <허생전> <홍길동전>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두 편의 고소설에서는 대도 소재 가운데 도적선도 요소와 해외진출 소재가 결합하여 해외 개척의 의미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해외진출과 대도 소재를 통해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변이양상과 작가의식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대거 등장한 야담집의 창작 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으며, 현전 <홍길동전>의 창작 연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다. 아울러 <허생전>과의 영향관계도 구명할 수 있다.

해외진출 소재는 조선후기 인재등용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 이 글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61차 학술대회(2008년 2월 19일)의 기획 주제인 '근대전환기 이국취향의 문화적 형성과 문학적 재현'에 맞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강성숙 교수님과 도움 말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 BK21 연구교수

확인할 수 있다.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신선사상이나 불교사상에 심취하던 선비들의 경향이 이 시기에 와서 해외진출이라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으로 변화한 것이다. 결국 해외진출 소재는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의 표면화된 모습이며 그 떠남의 정신이 곧 근대의식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해외진출, 해외개척, 대도설화, 인재등용정책, 진취적 비판의식, 근대의식

1. 서론

조선후기 문헌설화 가운데 이상을 품은 선비나 지략은 풍부하나 정상적인 출사를 이루지 못한 선비가 해외의 섬으로 진출하는 이야기가 일군을 이루고 등장한다. 재화(財貨)를 모아서 해외의 섬에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유형도 있지만, 대체로 도적의 무리를 선도하여 섬으로 들어가는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소재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상과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다고 예측된다.

조선후기 영조 말년에서 정조 초년에 이르는 시기에 대도(大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 대도들이 의도(義盜)로 칭송받자 뜻을 펴지 못한 선비들 사이에는 도적 두목이 되어 불의의 재물을 탈취해 와 무리를 호령하며 사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사회풍조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발견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풍조를 반영한 서사작품에서는 지금까지의 도적 근거지가 산악 중심이었던 것을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설정하는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국내의 산악보다는 해외의 섬이 관군의 토포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략이 작용한 측면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고, 나아가

1) 김종근, 「<도재상(盜宰相)>계 설화의 이상실현 의지와 개작의 연관성」, 『어문연구』 49집, 어문연구학회, 2005.

기존 체제 속에서 펼치지 못한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본토에서 떨어진 섬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문을 통해 유교적 인성을 갖춘 선비가 비록 벼슬살이의 불합리함을 견디지 못해 도적의 두목이 되었다라든가 선량한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도적질로 국가의 기본적인 치안 질서까지를 위협할 수 없다는 배려에서 이루어진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문헌설화에서의 해외진출 소재는 대도 소재와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후대 여러 야담집에 변개된 양상으로 수록되었고, 점차 <허생전>이나 <홍길동전>과 같은 고소설에도 유입된 것으로 이해²⁾할 수 있다. 이들 소설 속의 해외진출 이야기는 문헌설화의 그것과 흡사하다. 단지 소설적 흥미를 배가하기 위해 해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개척 과정을 극적으로 장치하는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서사에 등장하는 해외진출 소재에 대한 기존의 논의 중 서종문·김석배·장석규의 공동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홍길동전>의 울도국 개척 소재가 허균의 원전에 애초부터 존재했다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후대의 개작가나 독자에 의해 변개 삽입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울도국 진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변산반도 지역에 웅거하던 군도(群盜)활동 이야기와 조선후기에 해상 이상향으로 회자되던 동해의 삼봉도(三峰島) 이야기가 결합하여 해외진출이라는 소재적 원천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³⁾

이 논의는 대도 소재와 해외진출 소재의 결합이 영·정조시대 문헌설

2)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해외개척 대도(大盜)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 50집, 어문연구학회, 2006이 있다.

3) 서종문·김석배·장석규, <홍길동전> ‘울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국어교육연구』 27, 경북대사범대학국어교육연구회, 1995, pp.105~158.

화나 고소설의 서사 짜기의 한 틀이 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해외진출 소재는 <홍길동전>의 울도국 개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생전>에서 변산 군도와 공도(空島)진출 소재의 결합 형태를 보이면서 이러한 서사의 틀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결국 해외진출 소재는 지금 우리가 접하는 <홍길동전>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서사적 틀을 마련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탐색할 필요를 느낀다.

이글에서는 조선후기 일거에 등장한 해외진출 소재가 동시기에 대두된 대도 소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소재간의 교섭 양상을 통해 조선후기 야담집 사이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설화의 소재가 고소설로 유입되는 양상을 살펴 서사문학사의 계통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통해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하는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근대의식의 단초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해외진출을 다룬 서사

조선후기 서사에서 해외의 섬으로 진출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인의 면모를 가진 선비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못하고 해외의 섬에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도적들을 이끌고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도하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앞의 경우는 『해동이적 보(海東異蹟 補)』에 수록된 <해중서생(海中書生)>이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뒤의 형태는 <허생전>이나 <홍길동전>에 삽입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섬을 점거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여전히 도적활동을 펼

치는 이야기가 19세기 문헌설화에 자주 설정되어 산증을 활동 무대로 하던 ‘녹림당(綠林黨)’이란 말이 무색해질 상황인데, 이 역시 해외진출 소재의 영향으로 설화 속에 삽입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해외에 이상사회를 건설한 설화

효종·현종 연간에 6차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정태화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문헌에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는데, 먼저 『해동이적 보(海東異蹟 補)』⁴⁾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태화가 젊어서 독서 차 절에 가니까 한 선비가 먼저 와서 독서하고 있었다. 이 선비가 정태화를 보더니 사흘간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가 보따리를 싸서 떠나려고 하기에 정태화가 까닭을 물으니, “나는 천하에서 재상될 사람이 나 혼자로 알았는데, 그대를 보니 당연히 재상이 되겠기에 먼 이역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대는 어느 해에 급제할 것이고, 언제 평안감사가 되어 구성(龜城) 지역을 지나갈 터인데, 그 때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떠나 버렸다.

② 뒷날 정태화가 과연 평안감사로 부임길에 구성 지역에 이르니, 한 종이 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앞서 절에서 헤어졌던 그 선비의 편지를 전하면서 말에 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날 만에 함경도 지역 해안에 이르렀고, 다시 배를 타고 수만리를 가서 한 섬에 닿았다.

③ 임금처럼 차린 그 선비는 정태화를 맞이해 대접하면서, “대장부가 구차하게 살기보다 멀리 새로운 세상을 개척함이 낫다고 생각하여, 여기로 와서 각국의 갈 곳 없어 떠도는 백성을 모아 토지를 개간한 결과 이렇게 번창했다”라고 말했다. 사흘간 머문 정태화가 떠나려 하니 선비는 한 작은 방으로 안내해

4) 『해동이적』은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이 역대 인물들의 이사(異事)를 기록한 저술인데, 월송 순양자(越松純陽子)라고 밝힌 사람이 ‘補’라고 명시하여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는데, 평해가 본관인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증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보(朝報:정부 발령을 적은 통보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아 놓고 부모국 소식을 듣는다”고 말하고는 헤어졌다.⁵⁾

정태화의 친구는 지인지감을 가진 이인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동해 바다 수만리에 있는 섬을 개척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데, 출사(出仕)를 위해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다.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수만리 떨어진 섬이 마땅했을 것이고, 생활고에 찌든 각국의 유민들을 모아 섬을 개간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고국에 대한 관심과 충정은 그대로임을 조선의 조보(朝報) 사들여 보고 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⁶⁾. 비록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건설하였지만 결코 조국을 배신한 행위는 아님을 기저에 깔고 있어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소재는 18세기 이전의 문헌설화에서는 찾을 수 없어 주목을 요한다. ‘기문(記聞)’에서 가져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록은 이것이 처음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진출 소재의 이야기는 동시대에 저작된 연암의 <허생전>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어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외진출이라는 단독의 소재가, 도적을 선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해외를 개척하는 <허생전>보다는 앞서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2) 도적을 선도하여 해외로 진출한 서사

<허생전>에 삽입된 해외진출 소재는 위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구체

5) <해중서생>, 『해동이적 보』(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권6)

6)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권, 건국대출판부, 1998, pp.465-467 참조.

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허생이 변부자의 돈을 빌려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번 후 변산의 도적 떼를 선도하는 이야기가 중반부에 흥미롭게 삽입되어 있다.

허생이 늙은 사공에게 묻기를,

“해외에 사람이 살만한 빈 섬이 있던가?”

하니, 사공이 말하였다.

“있습죠. 일찍이 풍랑에 떠돌다가 줄곧 서쪽으로 사흘 밤낮을 가니 한 빈 섬에 닿았는데, 대략 사문(沙門)과 장기(長崎) 사이쯤으로 생각됩니다. 꽃과 나무들이 저절로 피고 과일과 열매들도 저절로 익어가며, 고라니와 사슴들이 무리를 이루고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거기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할 것일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랐다.

마침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땅이 천리를 넘지 못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그나마 땅이 거름지고 샘물이 다니 다만 부가옹(富家翁)이 될 만한 하구나.”

사공이 말하기를,

“섬이 비어서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사시려 합니까?”

하니, 허생이 말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법이라. 외려 내 덕이 없음을 두려워할 일이 지 어찌 사람 없음을 염려하겠는가.”⁷⁾

7) 許生 問老篙師曰 海外 豈有空島 可以居者乎 篙師曰 有之 嘗漂風 直西行三日 夜 泊一空島 計在沙門長崎之間 花木自開 菓蓴自熟 麋鹿成群 游魚不驚 許生 大喜曰 爾能導我 富貴共之 篙師從之 遂御風東南 入其島 許生 登高而望 悵然曰 地不滿千里 惡能有爲 土肥泉甘 只可作富家翁 篙師曰 島空無人 尙誰與居 許生曰 德者 人所歸也 尙恐不德 何患無人(<허생전>)

허생도 위 정태화의 친구처럼 해외의 섬을 개척하여 자신이 꿈꾸던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해외 섬에 대한 묘사나 노정도 사실적으로 설정되었다. 제주도에 돌아오는 길에 사공을 통해 해외의 빈 섬을 대상으로 물색한다. 그곳이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임을 전해 듣고 곧장 답사를 행해 실체를 파악한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좁다는 데 있다. 적이 실망이 됐지만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길로 변산의 도적 소굴로 찾아가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도적들을 설득하여 빈 섬으로 들어가는데, 꿈꾸었던 이상세계 건설은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다.

이에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둘렀다. 땅의 기운이 이미 완전하여 온갖 씨앗이 크게 무성하니, 일구지 않고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맺을 지경이었다. 삼년간 먹을 양식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실어 장기도(長崎島)에 가서 파니, 장기도는 일본에 붙은 곶으로 삼십만 호 정도였다. 바야흐로 크게 흉년이 들어서 마침내 구휼을 하고 은 백만 냥을 얻었다.

허생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제 내가 조그마한 시험을 마쳤구나.”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불러 명하기를,

“내가 처음 자네들과 더불어 이 섬에 들어와 먼저 부유하게 한 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옷과 갓을 새로이 만들려 하였으나 땅이 좁고 덕이 부족하니, 나는 이제 떠나야겠네. 아이를 낳아 수저를 쥐일 때 오른 손에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낳았으면 양보하여 먼저 먹도록 가르치거라.”

그리고 다른 배들은 다 불사르며 말하기를,

“가지 않으면 곧 오는 이도 없으리라.”

하고는, 은 오십만 냥을 바다 속에 던지며 말했다.

“바다가 마르면 얻는 자가 있겠지. 백만 냥이면 나라 안에서도 소용이 없는데 하물며 작은 섬에서라!”

그리고 글을 아는 자가 있으면 함께 더불어 배에 태우고 나오며 말하기를,
“이 섬에서 화근은 뽑아야지.”

하였다.⁸⁾

허생은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꾸꾸었던 듯하다. 일단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연후에 별도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문물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천혜의 이상향을 찾겠다는 소박한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맞춰 새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의미로 와 닿는다. 창세의 이야기에서 하늘 땅이 열리고 곡식의 씨앗을 구해 농경을 시작하게 하여 백성의 안정시키는 농경신의 면모, 햇빛은 미개인에게 의관을 갖추게 하는 직물신의 면모,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문화를 형성하려는 문명신의 면모를 한 몸에 갖추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척한 섬이 좁고, 자신의 덕이 박하여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여기서 허생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임에 도적의 무리들을 문명의 세계로 이끄는 것을 포기하고 원시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조치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밭 갈아 먹고 사는 법, 장유(長幼)를 분별하는 기본 질서만을 주의시키고 문명화를 포기하고 있다. 문자를 아는 사람은 화근이 될 것이라는 말에서 원시의 상태로 살아

8) 於是 伐樹爲屋 編竹爲籬 地氣既全 百種碩茂 不藹不畚 一莖九穗 留三年之儲 餘悉舟載 往耀長崎島 長崎者 日本屬州 戶三十一萬 方大饑 遂賑之 獲銀百萬 許生 歎曰 今吾已小試矣 於是 悉召男女二千人 令之曰 吾始與汝等入此島 先富之 然後 別造文字 糊製衣冠 地小德薄 吾今去矣 兒生執匙 教以右手 一日之長 讓之先食 悉焚他船曰 莫往則莫來 投銀五十萬於海中曰 海枯有得者 百萬 無所容於國中 況小島乎 有知書者 載與俱出曰 爲絕禍於此島(<허생전>)

가는 것을 이상향의 차선으로 택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허생은 새 세상 창조의 포부를 접고 ‘작은 시험의 완수’ 수준으로 빈 섬을 떠나온다.

불발로 끝난 이상세계 건설에서 허생의 궁극의 목적이 해외개척이 아니라 도적 선도, 나아가서는 본국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변산 도적 토포에 고심하는 관청과 이를 위해 징발당하는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토포의 위협에서 도적질도 못하고 굶주리는 도적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적 소굴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생전>에서의 해외진출 소재는 대승적으로는 본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적무리를 격리해 내는 방안이고, 굶주림과 토포의 위협으로 궁지에 몰린 도적들에게는 활로를 뚫어주는 시혜 사업이며, 허생 자신에게는 꿈 꾸었던 이상세계 건설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시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암은 <옥갑야화>에서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이적을 행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던 중 허생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허생의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록의 의도가 치부(致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적 선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시사삼난(時事三難)’의 주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단지 ‘이적을 행한 특이한 이인이 있었다’에 모아지고 있다. 『계서야담』을 비롯한 후대 야담집 5-6편에서 이와 유사한 ‘허생’이야기⁹⁾를 싣고 있는데 장사를 통한 치부나 도적 선도를 위한 해외진출 소재는 찾을 수 없다. 결국 연암은 당시 대두된 이

9) 허생 이야기는 『계서야담』에는 제목 없이, 『청구야담』과 『해동야서』에는 <識寶氣許生取銅爐>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후 『동야회집』 『아동기문』 『청야담수』 등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전하는데, 허생이 부자의 돈으로 기생의 소지한 오금화로(烏金火爐)를 취해 큰 재물을 얻더라는 내용이다. 『이조한문단편전집』상(이우성·임형택 역편, 일조각, 1973)에서는 연암의 <허생전>과 구별하기 위해 <허생별전>이라는 제목으로 국역을 해 두었다.

상세계 건설로서의 해외진출 소재에 매력을 느껴 독창적인 이인 ‘허생’을 입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주의 해외진출 소재는 <홍길동전>의 말미를 장악하고 있다. 적서의 차별이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적이 된 홍길동이 병조판서가 되어보고 원을 쫓 다음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제도로 들어가 기반을 다져 인근 울도국을 정벌하여 국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다.

각설, 길동이 제 곳의 도라와 제격의게 분부호되,

“니 단녀을 곳이 이시니, 녀등은 아모디 출넙 말고 니 도라오기틀 기다리라.”

호고, 즉시 몸을 소소와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호 곳의 다다르니, 이는 소위 룰도국이라.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청수호고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안신희 곳 이라 호고, 남경의 드러가 구경하며 또 제도라 호는 섬중의 드러가 두로 단니 며 산천도 구경호고 인심도 살펴며 단니더니, 오봉산의 니르러는 진짓 제일 강산이라. 쥬회 칠빅 니오 옥야답이 가득하여 살기의 정이 의합한지라. 니심의 혜오되, ‘니 임의 묘션을 하직하여시니, 이곳의 와 아직 은거하여다가 대스를 도모호리라.’ 호고(중략)

각설, 길동이 묘션을 호직고 남경 싸 제도섬으로 드러가, 슈천 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고 지도을 틉화 무고을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정양쪽호더라.¹⁰⁾

<홍길동전>의 소설사적 위치를 염두에 둔다면 조선후기 모든 서사의 해외진출 소재는 여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접하는 실체가 허균 창작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19세기 재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각 이본간 비교 분석¹¹⁾을 통해 볼 때 본문의 내용이 전반과 중반부까지는 요지부동 변동이 없다가 후반부 해

10) <홍길동전>(경판 24장분)

11) 김종균, 앞의 논문 참조

외개척 부분에 와서는 각 판본별 유동이 심하게 보이고 있어 의문을 더한다. 그렇다면 <홍길동전>의 해외진출 소재 역시 이 시기의 서사문학 창작의 시류에 함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길동 역시 허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공간으로서 해외의 섬을 찾는다. 그런데 안성맞춤으로 찾은 율도는 이미 왕국을 형성하고 있어 그 인근의 제도라는 섬을 전진기지로 삼아 이상국가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길동은 허생이 지리적 제약으로 접고 나온 이상세상 건설의 꿈을 농사에 힘쓰고, 군사력을 키워가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의 율도국을 정벌하고 자신이 꿈꾸던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설정된 것은 소설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3) 도적들의 섬 점거 설화

다음은 섬을 개척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선후기 도적들이 섬을 점거하여 활동한 설화를 고찰하여 방증자료로 삼고자 한다. 중국 전한 때 왕망(王莽)이 신(新)나라를 세우자 이에 항거한 세력들이 호북성 녹림산에 은거하여 대항한 데서 유래한 녹림(綠林)이란 말은, 산악을 점거하여 관군과 맞서는 도적무리를 지칭하는 말로 유전되었다. 그러므로 도적무리가 산중에 근거지를 마련하다는 것이 상식이었고, 조선중기까지의 도적 이야기에서는 모두 산중을 배경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오면 도적들이 바다에 있는 섬을 그들의 근거지로 삼고 도적질을 하는 이야기가 여러 편 등장한다. 이는 동시기에 해외진출 소재와 대도 소재가 발흥한 문학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영남진사(嶺南進士) 이야기

『청구야담(靑邱野談)』에는 영남의 한 선비가 섬에 근거지를 둔 도적무

리의 초치를 당해 그들의 두목이 되어 지혜로 도적 행위를 지휘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영남의 한 선비가 약관(弱冠)에 진사급제하고 문장과 지략을 겸비했는데, 하루는 먼 바다의 섬을 접거해 있는 도적에 의해 초치되어 가서 두목으로 추대된다.

㉡ 두목이 된 선비는 전라도 해안 근처의 만석꾼 부잣집 재물을 탈취하기로 계획한다. 곧 서울의 한 재상집에서 부친이 사망해 이 만석꾼 집안 선산을 빼앗아 묘를 쓰겠다고 통고한다. 상여가 온다는 날 부잣집에서는 여자들만 집에 두고 모든 종들과 이웃사람들을 동원해 선산으로 가서 지킨다. 이때 도적들은 집을 습격해 여자들을 한 방에 가두고 재물을 탈취해 섬으로 돌아간다.

㉢ 섬으로 돌아온 선비는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좋아하니, 큰 잔치를 열고는 도적들을 선도해 재물을 나누어주어 귀가시킨다. 그리고 선비는 섬의 시설물에 불태우고는 집으로 돌아온다.¹²⁾

(나) 영남사족(嶺南士族) 이야기

위 설화와 함께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로, 섬을 접거해 있으면서 영남의 한 부잣집 재물을 탈취한 전형적인 대도설화인데, 선비를 초빙해 가서 두목으로 삼은 이야기가 아니고 섬에 근거지를 둔 전형적인 도적 두목 이야기이다.

㉣ 영남의 한 부자가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주위를 높은 절벽으로 에워싼 요새에 집을 짓고 수백 명의 종들이 방비를 해 도적이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부잣집에서 가까운 동해바다의 한 섬에는 지략이 뛰어난 도적 두목이 많은

12) 嶺南一進士 以文章智略 爲一道所稱 皆許以都元帥目……(<諭義理群盜化良民>, 『靑邱野談』卷5, 國立中央圖書館本)

무리를 거느리고 접거해 있었다. 두목은 부잣집에서 서울의 고관(高官) 집안과 친분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 부잣집 재물을 탈취할 계획을 꾸몄다. 곧 울산 고을 관장이 사망해 서울로 운구한다고 꾸며, 운구행렬을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상여 속에 무기를 감추고 많은 도적을 인부로 가장해 이 부잣집으로 들어왔다.

㉠ 밤에 주인을 위협해 종들은 모두 한 곳에 가두고, 여자들을 한 방으로 몰아넣은 다음 집안의 모든 재물을 꺼내 말과 소에 싣고 섬으로 돌아갔다. 이때 두목은 여인들이 있는 방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으며, 주인이 가장 아끼는 청노새도 손대지 못하게 엄명했다.

㉡ 그런데 한 도적이 명령을 어기고 청노새를 가져갔는데, 두목은 이튿날 청노새 가져간 도적의 목을 베어 청노새 등에 실어서 청노새와 함께 돌려주었으며, 또한 주인에게 인생살이와 재물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대장부다운 당당한 행동을 해 주인을 크게 감탄시켰다.¹³⁾

(다) 경성대적(京城大賊) 이야기

㉠ 서울의 한 도적이 한 대도(大盜)를 사위로 맞았다. 하룻밤 사위는 장인과 함께 호조(戶曹) 창고의 지붕을 뚫고 내려가 ‘천(天)’자가 새겨진 은괴를 훔쳐 나오니 1만 냥이나 되었다.

㉡ 이튿날 밤 장인은 욕심을 내어 사위 몰래 혼자 다시 호조 창고로 가서 지붕의 구멍으로 줄을 타고 내려갔다가, 은으로 덮어 위장해놓은 꿀 독에 빠져 머리만 내놓고 있었다. 낮에 포도대장 이완(李浣)이 도적이 다시 지붕으로부터 내려올 것을 예측해 함정을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 새벽에 이 사실을 안 사위는 급히 달려가, 신분이 노출되면 가족이 몰살당하니 장인 혼자 희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 장인의 목을 베어와 신분을 감추었다. 이후 이완대장은 목 없는 시신을 종로에 내놓고 지키게 했는데, 사위는 병사들에게 독한 소주를 마시게 하여 시체를 찾아왔고, 또 시구

13) 嶺南一士族 以世富 有百餘萬財 所居基址 三面皆石壁……(〈語消長偷兒說富客〉, 『青邱野談』卷5, 國立中央圖書館本)

문 지키는 병사들을 환대해 시체를 성 밖으로 내가 매장했다.

㉔ 범인을 놓친 이완대장은 소상 대상 제삿날에 군사를 시켜 밀탐하게 했는데, 사위는 미리 알고 소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으며, 대상 제사도 못 지내게 하니 장모가 슬퍼 울음소리를 내어 그만 발각되고 말았다. 이에 사위는 이완대장에게 달려가 자수했다.

㉕ 이완대장은 그의 늙은 모습과 용서해 포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바다 가운데 섬을 점거해 있는 완악한 도적무리를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포장은 이완대장에게 자신이 내보내는 도적을 차례로 죽이라고 말하고 포졸 몇 명만 데리고 섬으로 들어갔다. 섬의 도적들은 옛날에 서로 아는 사이였으므로, 포장은 이완대장에게 자수하여 부하가 되라고 설득하여 한 명씩 내보내었고, 이완대장은 약속한 대로 모두 처형해 죽였다. 도적을 다 내보낸 포장은 같이 온 포졸에게 “내 임무가 끝났으니 내가 나가면 이완대장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므로 나는 어디로 떠난다”라고 말하고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¹⁴⁾

이들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지략이 뛰어난 도적들이 등장하여 모두 해외의 섬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나) 이야기의 도적 두목은 지략과 더불어 대장부다운 인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도적을 맞은 부자가 그 기개를 흠모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적 두목들 역시 관군의 토포 위협이 없는 섬을 자신의 활동 공간, 달리 말해 자신들만의 이상세계를 꾸려간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재화를 농사를 통해 얻지 못하고 본토에서 도적질로 조달한다는 데서 부정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이 설화들을 수록하고 있는 전적들이 조선후기 대도설화의 벽두인 <도재상(盜宰相)>이 수록된 『난실만필』¹⁵⁾이나 <허생전>¹⁶⁾, 그리고 『해동

14) 京城古有大賊 有女擇壻以善盜者 一漢自願來 因爲壻……(『溪鴨漫錄』坤, 서울대 圖書館本)

이적 보』¹⁷⁾보다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조선후기는 이와 같은 점과 관련된 도적 이야기가 계속하여 사회의 관심거리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해외진출 소재의 교섭 양상과 서사의 흐름

앞서도 언급했듯이 해외진출을 다룬 이야기는 조선후기 대두된 대도설화(大盜說話)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소재들의 교섭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변개를 읽을 수 있을 듯하다.

대도설화는 <도재상>을 시작으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문헌설화에 일군을 이루며 등장¹⁸⁾하는데, 출사를 염두에 두고 학문에 전념하던 선비가 자발적으로, 혹은 도적들에게 초빙되어 가서 두목이 되고 지략을 발휘하여 기발하게 재물을 탈취하는 이야기이다. 그 결말구조는 다양하여 도적을 선도하는 경우도 있고 몰래 도망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학문하는 선비들이 자신의 지략을 과시하는 시험의 장으로 도적 행각을 펼친다는 데 있다. 이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15) 진재교는 편찬자를 임매(1711-1779)로 규정하고, 저작 연대를 1750년경으로 추정(잡기교담의 작자와 저작연대, 『서지학보』 12, 한국서지학회, 1994, pp.65-74)하였으나 말미에 ‘영묘(英廟)’라는 묘호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정조 즉위년인 1776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 연대는 1776-1779년 사이로 볼 수 있다.

16) 연암은 1780년 연경을 다녀왔으므로 『열하일기』의 집필 시기를 그 즈음으로 보아야 한다.

17) 편찬자 황윤석(1729-1791)의 생존 시기와 문헌에 ‘영종(英宗)’이라는 묘호가 등장하므로 정조 즉위년인 1776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조 즉위년 이후의 기사는 찾을 수 없으므로 1780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18) 필자는 이 시기 발생하여 일군을 이룬 도적이야기 14편을 대도설화로 유형화하여 번역과 아울러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김종균, 『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7).

불만을 발산하는 방편으로 도적 두목이 되는데, 이 지점이 해외진출 소재와 상통하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들어 야담집들이 대거 편찬되고, 거기에 수록된 작품들이 재차 수록되는 가운데 편찬자들이나 작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담아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는 동일한 인물이나 사건에 당시 관심을 끌만한 소재들을 끌어들이어 소재간 교섭을 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외진출 소재나 대도 소재는 그 사회적 의미가 유사한 가운데 교섭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정태화의 친구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인적인 면모를 가진 정태화 친구 이야기는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앞서 언급한 『해동이적 보』의 <해중서생>과 『계서야담』에 수록된 도적 두목이 된 친구 이야기가 있다.

① 정태화가 어릴 적 절에서 두 친구와 함께 독서를 하는데, 각자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태화는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는 것을, 한 친구는 벼슬 않고 산천을 두루 떠도는 것을, 또 한 친구는 도적 두목이 되는 것을 말하였다.

② 시간이 흐른 후 정태화가 함경감사로 부임하니 벼슬을 앉겠다는 친구가 곤궁하여 구제를 청하려 가던 길에 회양 지역에서 도적 소굴로 초빙되어 간다. 훌륭한 대접을 받고 재상에 비길 차림을 한 사람이 맞이하는데 전날 도적 두목이 되겠다던 친구였다.

③ 도적 소굴을 구경시키는데 한 고을을 차지하고 수만의 군사들이 중국·일본 상인들의 재물, 탐관오리의 재물을 탈취하여 임금에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관료에 처해 위태롭고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아울러 융숭한 대접과 많은 재물을 주며 정태화 감사에게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돌려보낸다.

④ 정감사에게 꼭 가겠다고 하니 자신이 도적이 되어 있다는 말은 말라고 부탁하였는데, 친구는 이 사실을 모두 정감사에게 알리고 도적을 토포할 군사를 청한다. 정감사가 백성들에게 피해 없음을 들어 만류하자 한양에 가서 고변하겠다고 협박하여 군사를 얻어 도적소굴로 들어간다.

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도적 두목은 친구를 묶어 들어 신의 없음을 꾸짖고 곤장 10대를 치고 돌려보내며, 도적 소굴이 알려졌으므로 모두 불사르고 옮긴다.

⑥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어 있는데, 도적 두목 친구가 필적을 위조하여 편지와 함께 많은 재물을 보내 돌보아 준 것이었다.¹⁹⁾

두 이야기에서 공통된 요소는 정태화의 어릴 적 친구가 출사만이 장부가 사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졌고, 관료의 부조리에 얽매이기 싫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이야기의 차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인데, 앞에서는 해외의 섬을 개척하였고, 뒤에서는 선량한 백성들의 재물에는 손대지 않고 밀무역상과 탐관오리의 재물을 탈취하는 도적 두목이 된 데에 있다.

결국 정태화 친구의 이인 행적이라는 동일 서사 골격에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해외진출 소재와 대도 소재가 따로 삽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편찬자 황윤석과 이희평의 저작의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황윤석은 <해중서생>에서 그의 행적이 도적이 아닌 이인의 그것으로 숭양하는 자세를 취한다. 아울러 향간에 떠도는 허균의 <홍길동전>의 내용이 '도적 홍길동' 내용이라는 것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정태화(鄭太和)가 만난 사람이 어찌면 홍길동의 부

19) 『계서야담』 권4, 서울대 규장각본.

류가 아니겠는가?²⁰⁾

황윤석은 당시에 현전하는 <홍길동전>을 보지 못했고, 그에 따라 풍문의 허상을 질타하고 있다. 그리고 선비가 해외를 개척하여 유민을 거둔 것을 거룩한 행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아마도 황윤석이 글을 읽은 선비가 도적의 두목이 된다는 사실에 강한 반감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돌려보면 ‘각국의 갈 곳 없어 떠도는 백성들’이란 도적의 무리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도적 선도의 결과라고 보아도 될 것인데, 황윤석은 도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유민정도로 표현하였다.

결국 그보다 후대에 가서 이회평은 <도재상> 이후의 대도 소재를 그 대로 차용하여 공간 배경을 산중으로 삼고 녹림당을 이상적 세계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현실 비판적 시각에서 이상세계를 갈구하고 개척한다는 공통된 의식은 떨칠 수 없다.

연암의 <허생전> 역시 <허생별전>과 비교하면 해외진출 소재가 이인의 행적을 드러내는 장치로써 삽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허생은 세상사에 뜻이 없고 『주역』만 탐독하다 아내가 생계를 위해 삭발한 것을 보고 10년을 기다리라 하고 집을 나온다.
- ② 개성감부 백씨에게 1천 냥을 빌려달라니 선뜻 주므로 평양 기생 초운에게 당진한다. 연이어 세 번에 걸쳐 3천 냥씩을 빌려가서 모두 당진한다.
- ③ 돈이 떨어지자 초운이 쫓아내려하자 오동로(烏銅爐)를 얻어 돌아와

20) 舊聞 國朝中葉以前 有洪吉童者 相臣逸童孿弟也(洪逸童居長城亞次谷) 負才氣自豪 而拘國典 不許科宦清顯 一朝忽逃去. 後有使者 歸自明朝言 海外一國使臣以其王表文 齎至北京 王姓恭 從共下水 此何字也 或疑其爲洪吉童變姓. 吉童忽單騎 來謁逸童上壽 留數日 將行泣曰 自此不復來矣 乃去. 蓋其威儀容止 非復爲人下者 必其逃海外自王. 或曰 許筠所作傳 不足信 何可信也 若鄭所遇 豈亦吉童者流歟.(『海東異蹟 補』)

잘게 부수어 회령시장에서 고후(賈胡 서역상인)에게 10만 냥을 받고 판다. 이 화로는 오금으로 만든 것으로, 진시황이 불사약을 다리도록 서불에게 준 것이 일본인 손에 들어가 임란 때 평행장(平行長)이 조선으로 가져왔다가 평양 초운의 집에 둔 것이다. 허생은 천기를 보고 안 것이다.

④ 백부자가 허생을 신인(神人)이라 여기고 10만 냥을 받으려 않자 화를 낸다. 백부자가 매달 생계를 챙긴다.

⑤ 이완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시사삼난을 제시하나 듣지 않자 호통을 치고 잠적한다.²¹⁾

두 이야기 모두 허생이라는 이인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생계를 돌보지 않고 글을 읽는 이인으로 그려지고, 갑부를 만나 호기로써 큰돈을 벌리고, 기지를 발휘하여 수십 수백 배의 돈을 모았으나 치산(治産)에는 뜻을 두지 않고, 신인으로 명성이 나 이완대장이 북벌론의 방책을 묻는데 시사삼난을 들어 힐난하는 요소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지 연암은 허생의 극적인 이인 행적을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하여 백만 금 모으기, 꾸무던 이상세계 건설을 해외진출 소재를 끌어와 시험하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후대의 이야기에서는 당시 일군을 이루던, 기녀에게 재물을 탕진하고 남들이 몰라보는 오금(혹은 생금덩이)을 얻어 큰 부자가 된다는 소재²²⁾를 끌어오고 있다.

연암은 『열하일기』의 <허생후지(許生後識)>에 자신이 스무 살 때 (1756년) 봉원사에서 만난 선인(仙人) 윤영(尹映)에게서 ‘허생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그에게 허생 이야기를 입전하겠다고 말하였는데 18년 후인 1773년에 다시 만났을 때까지 아직 짓지 못했다고 미안해하고²³⁾ 있

21) 『계서야담』 82.

22) 이 소재의 이야기는 『어우야담』의 ‘울골금팔자’ 이야기, 『파수록』의 ‘양주염씨’ 이야기, 『청구야담』의 ‘조동지양자’ 이야기 등이 있다.

다. 아울러 말미에 윤영이 ‘허생의 아내는 참으로 가엽다. 마침내 다시 굶주릴 것이니.’라고 언급한 걸 보면 치산(治産)에는 관심이 없는 이인 행적이 이야기의 주 내용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항간에 떠돌던 이인 허생의 행적에 연암은 자신의 이용후생적인 실학사상에 입각한 매점매석의 소재를 끌어왔고, 더불어 자신의 이상세계 구현을 위해 도적을 선도하여 해외를 개척하는 소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773년까지 입전하지 못한 <허생전>을 1780년경에 완성하면서 당시 문학계에 대두된 도적 선도와 해외진출이라는 소재를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도재상>(1776-1779년)과 <해중서생>(1776년 즈음), <허생전>(1780-1790)이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점을 주목하면, <도재상>에서의 도적 선도 요소와 <해중서생>의 해외진출 소재를 결합하여 <허생전>의 도적 선도를 통한 빈 섬 개척 이야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홍길동전>의 해외개척 소재 삽입에 대한 추론은 <해중서생> 말미에 붙은 홍길동 관련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옛날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엽 이전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있어 재상이었던 홍일동(洪逸童)의 서제(庶弟)였다[주: 홍일동은 장성 아차곡에 살았다. 재주가 있고 기개가 넘쳐 호걸로 자부했지만 나라의 법률에 얽매어 과거를 보아 높은 벼슬이 허용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홀연히 도망을 가버렸다.

② 그 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명나라에서 말하는데, “해외에 한 나라가 있어서 그 사신이 자기 나라 왕의 표문(表文)을 가지고 북경에 와서 제출한 것을 보니 왕의 성씨가 ‘쑹’ 자 밑에 ‘水’를 붙인 글자여서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다.” 하는 이야기

23) <허생후지(許生後識)>, 『열하일기』(일재본)

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 홍길동이 성씨를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③ 그 무렵 갑자기 홍길동이 혼자 말을 달려 와서 형님 홍일동을 문안했다. 그리고 며칠 머문 뒤에 떠나면서 이후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떠나갔다.

④ 이때 홍길동의 차림새는 결코 남의 밑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았으니 필시 그가 해외로 도망해 스스로 왕의 된 것으로 보인다.

⑤ 혹자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정태화(鄭太和)가 만난 사람이 어찌면 홍길동의 부류가 아니겠는가?²⁴⁾

이 기사를 근거로 보면 18세기 말에 박문다식하여 용어 사전에 해당하는 『회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와 국어학의 귀중한 자료인 『자모변(字母辨)』을 집필한 황윤석이 우리가 보는 <홍길동전>을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위 이야기에서 ①~③까지는 황윤석이 전해들은 옛날이야기(舊聞)이다. 적서차별에 불만을 품은 홍길동이 종적을 감추었고, 해외에 홍(洪)자의 변형으로 보이는 글자(共 밑에 水)를 성씨로 쓰는 왕이 있어 사람들이 혹시 홍길동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고, 문득 사라졌던 홍길동이 나타나 그 형에게 작별을 고하고 영원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황윤석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였으니 항간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4) 舊聞 國朝中葉以前 有洪吉童者 相臣逸童孿弟也(洪逸童居長城亞次谷) 負才氣 自豪 而拘國典 不許科宦清顯 一朝忽逃去. 後有使者 歸自明朝言 海外一國使臣 以其王表文 齎至北京 王姓恭 從共下水 此何字也 或疑其爲洪吉童變姓. 吉童忽 單騎 來謁逸童上壽 留數日 將行泣曰 自此不復來矣 乃去. 蓋其威儀容止 非復爲 人下者 必其逃海外自王. 或曰 許筠所作傳 不足信 何可信也 若鄭所遇 豈亦吉童 者流歟.(『海東異蹟 補』)

이 이야기를 듣고 황윤석은 ④에서 홍길동의 위엄과 용모가 비범하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해외에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다. 이는 황윤석의 주장이다. 그리고 ⑤에서와 같이 허균의 <홍길동전> 창작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서 ‘혹자’는 『송천필담(松泉筆譚)』의 편찬자 심재(1722~1784)를 말하는 듯하다. 허균의 <홍길동전> 창작설을 처음 밝힌 이식의 『택당집(澤堂集)』의 기사를 15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황윤석은 그 인용 기사를 보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수호지를 비의(比擬)했다는 <홍길동전>의 내용이라면 도적 이야기일 것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해외의 왕이 된’ 홍길동을 도적의 괴수로 몰아가는 것이 큰 불만이었던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황윤석 생존 당시에는 허균이 지었다는 <홍길동전>의 실체는 없었든지, 아니면 비서(秘書)처럼 숨겨져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실체가 도적 이야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후반부에 해외를 개척하는 소재가 붙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구전으로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도적이야기는 전혀 없고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왕이 된 영웅이야기-가 떠돌았을 것이다. 황윤석은 구전되는 이 이야기에서 해외진출 소재를 차용하여 <해중서생>을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⑤의 말미에서처럼 정태화의 친구는 홍길동과 같은 부류일 것이라는 여운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전 <홍길동전>은 18세기 말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19세기에 와서 허균 창작본이 세상에 출현하였든지 아니면 걸출한 작가에 의해 위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후반부의 해외진출 소재는 <해중서생>이나 <허생전>에서 형성된 소재가 결합하여 울도국 건설 이야기로 발전하고, 도적들의 해외 점거나 해외진출 설화가 일반화된 19세기에 들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온전한 <홍길동전>의 모습이 갖추어

진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본다.

4. 해외진출 소재의 의미

<도재상> 설화에서 ‘도재상’이라는 용어는 조선중기까지는 도저히 등장할 수 없었다. 출사를 염두에 두고 학문에 매진하는 선비가, 물론 출사 전이기는 하지만 도적의 괴수가 되었다가 후에 재상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²⁵⁾이었다. 그럼에도 <도재상>을 필두로 유사한 서사가 일군을 이루며 창작된다. 이러한 서사 출현 분위기는 세상에 등용되지 못한 선비들이 자신의 뛰어난 지략을 활용하여 도적의 소굴에서나마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건설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²⁶⁾된 것으로, 기존의 처세관이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사유체계라고 할만하다.

해외진출 소재 역시 동시대에 선비들의 동일한 고뇌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린 이유는 조선후기 사회의 용인(用人) 정책의 부조리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출사를 꿈꾸는 젊은이는 많고 관직의 수는 제한된 좁은 나라 안에서 벼슬자리를 두고 당파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멀리 해외로 눈을 돌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창출한 것이다. <해중서생>의 말미에는 당시를 살았던 지식인의 항변이 역력하다.

25) 물론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병조판서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선례를 답습해서 이야기를 창작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현전 <홍길동전>이 허균 창작 작품으로 볼 수 없으니 도적 홍길동이 병조판서가 된다는 화소가 17세기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그리고 설사 길동이 병조판서가 되는 부분이 허균의 원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재상>이 나온 18세기 말에는 세상에 전모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적의 이력으로 재상이 된다는 서사는 18세기 말에 획기적으로 설정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 김종근, <도재상>계 설화의 이상실현 의지와 개작의 연관성,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2005.

천하는 무궁하니 또한 가히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이를 수 없다. 다만 ① 사람을 등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능히 인물을 잘 알아보아 발탁하게 하였더라면 어찌 앉아서 이러한 호걸들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②살아있는 용과 활동하는 호랑이 같아서 세속의 규율이나 법규에 의해 구속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도석(道釋)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멀리 저와 같이 도피해 버린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일찍이 도모하여 붙잡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이다²⁷⁾.

먼저 ①에서와 같이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용인(用人)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해외진출 소재나 대도 소재가 삽입된 이야기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체제에 수긍하며 좌절하는 양상이 아니라 ‘대장부가 구차하게 살기보다 멀리 새로운 세상을 개척함이 낫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낳게 된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산중의 도적 소굴이나 해외의 섬으로 제시되었는데, 도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부담감으로 해외의 섬으로 진출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②에서와 같이 생동하는 용과 호랑이(生龍活虎) 같은 이들이 체제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존재이므로, 신선사상에 심취하거나 불승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선초 김시습의 경우가 그러하였고, 허균과 교류하여 그의 한문단편의 주인공이 된 서류(庶流)의 처세 양상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색다른 방식으로 해외진출이라는 진취적인 대처법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에 용납되지 못한 일부 지식인들이 이상 실

27) 天下無窮 又不可謂無此. 但令用人者 有能鑑別拔擢 豈至坐失豪傑. 況天生此輩 如生龍活虎 非俗學常典 所可拘者 不入道釋 亦必遠逃如彼 及其未也 早爲之 所其亦庶乎可也. (『海東異蹟 補』)

현을 위해 신선사상에 심취했던 전통과 해외진출 이야기가 동일 맥락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해외진출 소재는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신선사상이나 현세의 삶보다는 내세와 윤회를 믿는 불교사상에 현실성을 대입한 처세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국가 조직 내에서는 드러내면 체제전복으로 밖에 갈 수 없다. 한 나라에 임금이 둘 일 수 없으므로 그 방안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진출 소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영(先塋)이 있고 부모형제를 위시한 일가친척이 있는 고향, 고국을 떠난다는 생각은 이 시기 이전에는 성립될 수 없었다. 세상에 용납 받지 못한 굴욕을 참아가면서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처세관이, 이 시기에 와서 비굴하게 사는 삶보다는 과감하게 해외로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물론 해외로 나가 독자적인 이상국을 건설하게 되면 선영과 부모형제를 모두 모실 것이라는 포부도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상을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게 실현한 이가 홍길동인 것이다.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처세라고 여기던 사유방식이 해외로 떠나서 독자적인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유로 변화한 것은 지극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획기적 변화가 곧 체제의 공고함을 자극하고 점점 느슨하게 만들어 근대로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 일거에 등장한 해외진출 소재는 사유체계의 변화를 통해 태동하던 근대의식의 단초라고 볼 수 있겠다.

5. 결 론

조선후기 정조연간에 우리 서사문학에는 새로운 소재들과 창작의 틀이 등장하는데, 대도 소재와 해외진출 소재가 그것이다. 출사를 준비하던 선비가 도적의 두목이 되어 자신의 지략을 과시한다는 대도 소재와 출사가 어려운 선비가 해외의 섬으로 진출하여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해외진출 소재는 같은 시기에,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한 선비들의 처세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재들은 18세기 말 이후의 야담과 고소설에서 상호 교섭을 이루면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해외진출이라는 소재는 이전 서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가 이 시기에 등장하고 일거에 몇 편의 서사에 긴밀하게 삽입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해외진출을 담고 있는 서사물은 『해동이적 보』에 수록된 <해중서생>을 필두로, 고소설 <허생전> <홍길동전>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두 편의 고소설에서는 대도 소재 가운데 도적선도 요소와 해외진출 소재가 결합하여 해외 개척의 의미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야담에서도 도적들이 섬을 거점으로 활약하는 내용이 있어, 해외진출과 대도 소재는 19세기의 서사 짜기의 새로운 틀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두 소재는 동일한 서사 구조에서 선별적으로 원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결합한 형태로 삽입되기도 하여 이 시기 서사문학의 변이양상과 작가의식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대거 등장한 야담집의 창작 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으며, 현전 <홍길동전>의 면모가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소설에 삽입된 해외진출 소재를 가지고 <허생전>의 공도 개척이 <홍길동전>의 울도국 건설에 영향을 미친 점도 읽어 낼 수 있다.

끝으로 해외진출 소재는 조선후기 인재등용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신선사상이나 불교사상에 빠져들어 은둔적이고 수동적인 처세를 견지하던 선비들의 의식이 이 시기에 그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해외진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진출 소재는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의 표면화된 모습이며 그 떠남의 정신이 곧 근대의식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계서야담』 권4 (서울대 규장각본)
 『계암만록』 곤 (서울대 도서관본)
 『열하일기』(일제본)
 『청구야담』 권5 (국립중앙도서관본)
 『해동이적 보』(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권6)
 <홍길동전>(경관 24장본)
- 김종균, 「<도재상(盜宰相)>계 설화의 이상실현 의지와 개작의 연관성」, 『어문연구』 49집, 어문연구학회, 2005, pp.5~35.
 김종균, 「해외개척 대도(大盜)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 50집, 어문연구학회, 2006, pp.5~34.
 김종균, 『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7, pp.1~264.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권, 건국대출판부, 1998, pp.1~572.
 서종문·김석배·장석규, 「〈홍길동전〉 ‘울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국어교육연구』 27, 경북대사범대학국어교육연구회, 1995, pp.105~158.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전집』 상, 일조각, 1973, pp.1~468.
 진재교, 잠기고담의 작자와 저작연대, 『서지학보』 12, 한국서지학회, 1994, pp.65-74.

ABSTRACT

Study on the Topic of going abroad appeared in the literature in late Chosun Dynasty

Kim, Jong-K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attern of going abroad as a new topic appeared in the literature in late Chosun Dynasty. One pattern is that bachelors who prepared to be a civil servant become the leader of thieves and show off their resourcefulness. The other one is that bachelors who have difficulties in being successful in the society go to an island abroad and build an ideal world. It must be presumable that those two patterns were revealed in the lifestyles of bachelors who were not accepted to the main society. These kinds of topics are set up in a various way to associate one another in an unofficial historical story and old novel late 18th century.

Especially for topic of going abroad, there can't be seen in the previous story, and it's necessary to pay attention on this phenomenon this topic is closely inserted to couple of stories. This topic going abroad is concretely found in <Haejungseosaeng(해중서생)> in 『Haedongijeok Bo(해동이적보)』 and old novel <HusaengJeon(허생전)>, <HonggildongJeon(홍길동전)>. Two old novels conclude the meaning of pioneer abroad.

These two topics are cited selectively in the same story structure, and they are combined and inserted into the story. So the variation pattern and author's mind are read in this era. It's possible to presume when the unofficial history was created, and existed <HonggildongJeon(홍길동전)> was formed after 19th century. Furthermore <HonggildongJeon(홍길동전)> was affected by <HusaengJeon(허생전)> in aspect of founding Yooldo Gook(율도국).

Finally, topic of going abroad is originated from the criticism of policy

picking up the civil servants. Passive and Hidden bachelors who complained the social system overcome the unreality and changed into active and optimistic. Therefore going abroad topic is the shape of surfacing the criticism and the spirit of leaving is the first step of modern consciousness.

Key Words going abroad, pioneer abroad, thief story, policy of picking up civil servants, active criticism mind, modern consciousness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